

게이츠 재단과 협력 진행상황 보고

2010.3.19/미래비전비서관실

◇ Bill & Melinda Gates Foundation (이하 게이츠 재단)과 개발협력분야 협조 관련, 게이츠 회장이 지정한 담당 책임자(Joe Cerrell 유럽총괄)와 협의 중인 바, 그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림

□ 게이츠 재단 측이 알려진 주요 내용

- 빌과 멜린다는 대통령님의 개인사와 한국의 개발 경험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상호 공동관심사를 바탕으로 향후 오랫동안 건설적인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힘
- 세계백신면역연합(GAVI)에 아시아 최초의 공여국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임

【세계백신연합: GAVI: Global Alliance for Vaccine and Immunization】

- *2000년 빌 게이츠 회장 주도로 다보스 포럼 계기로 창설, 미국, 영국, 노르웨이 등 공여국과 UNICEF, WHO, World Bank 및 각종 NGO가 참여, 백신 보급에 주력
- *2008년까지 총 38억불 예산을 확보했으며 WHO에 의하면 3백만명 아동의 조기사방 예방, 각종 예방접종으로 아동 약 5천만 명을 보호했다고 평가
- *2010년 다보스 포럼에서 대통령님과 면담 직후 게이츠 회장이 백신 활동에 100억불을 공여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, 대부분이 세계백신연합으로 갈 것으로 예측됨
- *한국은 동 연합에 공여국으로 가입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현재 기여금 규모를 놓고 정부 간 협의 중에 있음

- 아프리카에서도 농업개발과 보건의료 분야에 치중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순방 대상국 중 에티오피아와 가나에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는 바, 대통령님의 성공적 순방을 위해 돕겠다고 희망

□ 향후 우리측 대응 방향

- 세계백신면역연합에 대한 공여금이 현재 미미한 수준에서 논의

되고 있는 바 (금년도에 30만불을 일단 공여하고 추후에 검토해 보자는 정도), 연간단위보다는 중장기 약정(예를 들어 향후 5년간 1,000만불)을 통하여 인도주의적 공적원조의 impact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

- 대통령님 아프리카 순방 계기에 시범사업이 국제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와 가나에서 게이츠 재단과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를 모색 중
 -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체제구축과
 - 핵심질병퇴치 및 아동 사망률 저감을 목표로 의료보건 분야 협력을 효과적으로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
- 아프리카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G20정상회의 비즈니스서밋 계기에 대통령님과 빌 게이츠 회장이 공동으로 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 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
- 한편 여사님께서 후원회 명예이사장으로 도우시는 국제백신연구소의 경우, 공여국을 늘려 국제기구로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관건으로 파악되어 관련부처 및 연구소와 협의 중
 - ※ 현재 사업비의 대부분은 빌 게이츠 재단 (누계 1억3천만불)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부분 (연간 6백50만불 규모이며 매년 10%이상씩 증액) 부담을 하는 구조로, 스웨덴 이외에는 정기적인 공여국이 없으며 미국과 일본 등은 회원국도 아닌 상태